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8년 9월 1일(월)

32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김민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2008년 단체교섭 6대 요구 확정

지재식 위원장 “임금인상 및 완전복지 실현에 주력” 밝혀



노동조합은 8월 13일(수) 지방본부위원장회의와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2008년도 단체교섭 6대 요구를 확정했다. 6대 요구는 ▲기본급 5% 인상 ▲급식통근비 30만원으로 현실적 지원 ▲복지기금 751억원 출연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 3.8 → 2%로 인하 ▲

배우자까지 단체보험 가입 확대 ▲ 신규인력 충원 등이다. 이재식 위원장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은 임금인상과 9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완전 복지의 실현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단체교섭 기간 동안 노동조합 간부로서 더욱 긴장하고 책임감

을 갖자”고 독려했다.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조합원들의 살림살이가 많이 팍팍해 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비용 절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이켜보면 사측이 어렵지 않다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이런 매일수룩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들의 생활을 살피고, 보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해 “동종업계의 평균임금수준은 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를 한 만큼 사측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마련한 6대 요구는 최소한의 합리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2008년 단체교섭 6대 요구 주요내용	
1. 임금인상요구(안): - 기본급 5% 인상요구(안) - 근거: ① 노동부 발표 산업별(통신부문) 평균임금 확보 ① 월 산업별(통신) 평균임금 407만원(KT 387만원)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출연, 이와 관련 625억원 ②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서 관련 15억원 출연 ③ 2005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관련 111억원 출연
2. 급식통근비 현실적 지원 보상: 월 정액 30만원 - 현 월 정액 21만원(급식비 126,000원+통근비 84,000원, 급식비: 일 6,000원, 통근비: 일 4,000원) - 근거: 고유가 시대에 맞는 현실적 보상 및 조합원 사기진작 - 현실적 보상(일 14,000원: 급식·통근비 각 7,000원)	4.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 인하: - 연 3.8% → 연 2%(공약사항) - 근거: ① 주택자금: 12,771명, 1,756억원(이자수익 연 6,674백만원) ② 생활안정자금: 514명 269억원(이자수익 연 421백만원)
3. 복지기금 출연: 751억원 - 단체협약 제90조 관련 625억원 - 별도 출연금액 126억원(단체보험 15억원+기념품비 111억원) - 근거: ① 단체협약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항 회사는 세전	5. 단체보험 가입 확대: 배우자 - 직원 단체보험 가입수준(사망, 재해장애, 암 진단)
	6. 신규인력(현장기술, 개통, 정비) 충원 - 현장인력부족

'03 ~ '08 노동조합 집행부 주요 성과 내역

8대 집행부 (2003-2005년)	9대 집행부 (2006-2008년)	연도별 임단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 99년-2003년 대출 문제를 해소 ('03년도 단체교섭시 합의) 직장단체보험 가입 - 1인당 연간 12만원 수준 직장단체보험 가입 ('04년 단체교섭시 합의)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 - 지역본부별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 ('04년 별도 노사합의) 주택자금 대출 확대 - 대출자격 및 상환조건 등 완화 (무주택기간 3년 → 1년, 1년거치 10년 상환 → 본인 선택) - 세대주조합 식재료 여성조합원에게도 수혜 ('04년도 복지기금협의회의) 의료비 지원 확대 - 만 20세 이하 자녀까지 수혜대상 확대, 연간 수혜한도 5백만원까지 늘려 ('05년도 1/4분기 중앙노사합의 합의) 유아교육보조비 지급 - 유아교육보조비 취학전 1년간 매월 10만원 지급 ('05년 단체교섭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군직렬통폐합 - 2006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8개 직군(사무, 통신, 공업, 시설, 전배, 교환, 운송, 수위)이 폐지되고 22개 직렬 또한 사무와 기술로 단순화 개인연금 신설 - 연금저축: 5만원/월, 10년간 지급('06년 단체교섭시 합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 - 대부대상: 긴급가계자금 소모자, 임원·치료 등 과도한 의료비 발생, 경조사, 노부모 요양비 등 - 대부한도: 2,000만원(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총 5,000만원 이내) - 대부조건: 이자율 연 3.8% / 5년 원금균등상환('06년 단체교섭시 합의) 지원직 원전 해소('07년 노사관계개선협의회 합의) 해고자 전원 복지 - '07년 12월 26일 노사관계개선협의회 통해 남은 해고자 2명에 대한 복지 합의 - '09년 중 복지 예정('07년 단체교섭시 합의) 보육시설 확대 - 강북지방본부 해화, 부산지방본부 분부, 전남지방본부 분부('07년 단체교섭시 합의) 초등학생 교육보조비 지급 - 초등학교 6학년생에 한해 1년간 매월 10만원 지원('07년 단체교섭시 합의) 기념품비 인상 - 노동조합창립기념일과 회사 창사기념일 각 5만원씩 인상('07년 단체교섭시 합의) 복지기금 출연(총 3,294억원) - 최대 복지기금 확보로 조합원 복지 증진 - '03년: 1,000억원, '04년: 500억원, '05년: 500억원, '06년: 594억원, '07년: 700억원 노사대론회 실시 - 도고수련관('04.05.20-21), 본사5층회의실('05.01.31-02.01), 도고수련관('07.05.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도('03.08.08) - 기본급 2% 인상 - (부속) ESOP 사원연간보수 2% 출연 (사원, 회사 1:1 출연) 2004년도('04.08.06) - 총액 2% 인상 - (부속) 직장단체보험 1인당 연 12만원 수준 가입: '05년부터 시행 2005년도('05.08.12) - 기본급 3% 인상 - (부속) 특별성급급 100% 지급(1회) - KT주식 1인당 60주 무상지급 - 기념품비 4중(1인당 20만원)복지기금으로 전환 (복지기금 별도 출연) 2006년도('06.10.10) - 임금동결 - (부속)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실시 - 직군직렬 원전 통폐합 2007년도('07.11.12) - 기본급 2.6% 인상 - (부속) 보육시설 확대운영 ('08년 광역시 3개소 시적)

30일간 KT독점지역 제외 메가패스 신규접수 및 SO처리 불가

법인고객대상,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판매영업은 가능

KT는 지난 8월 25일(월) LG과워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30일, 25일 초고속인터넷 신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메가패스만 설치할 수 있는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8월 30일(토)부터 30일 동안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영업을 할 수 없게 됐으며, SO(Service Order)처리 역시 어렵게 됐다. 하지만 법인대상 메가패스 영업이나 결합상품판매 및 네스팟, 메가TV, 클린아이, 타임코디 등 부가서비스 신규영업은 가능하다.

또한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4억1천80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 LG과워콤에 대해 과징금 2천3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밝힌 KT

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사실은 총 11만7천 246건이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KT가 고객 동의 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화가 가능한 ID를 제공하고,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TM을 거부했던 고객에서 서비스 가입 TM을 허거나 제휴업체 신용카드 유지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KT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방통위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08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8월 25일부터 5일간 진행



KT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대표위원 김진욱 외 6인)는 2008년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

간 2008년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오전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총평을 발표하고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진욱 대표위원은 총평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어 있다”고 평한 뒤 “그럼에도 몇 건에 대해 지적할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회감위는 환수조치 7건, 시정조치 5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재식 위원장은 “지난 5일간 고생하신 회계감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방향 확정 반이명박 정권 투쟁 등 결의

민주노총이 올 하반기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반이명박투쟁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언론장악저지 등 민주주의 사수 △공기업민영화 등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정책 폐기 △비정규법 등 노동기본권 계약 저지 등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0일(수) 1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1단계(8월-10월 초) 언론장악과 공기업민영화 등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투쟁 △2단계(10월중-11월초) 2008전국노동자대회 등 총력투쟁 △3단계(11월중-연말) 대중정치투쟁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월 초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공기업민영화 등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를 위해 9월 중순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를 지원하고 9-10월에는 단위사업장별 하반기 투쟁 승리 결의행사에 집중한다.

또, 10월 중순경 2008전국노동자대회 개최와 함께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별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11월 중 10만 이상의 조합원과 가족, 시민 등이 결합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할 계획이다.

IT연맹

815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경찰진압속 100차 촛불집회 이어



IT연맹은 광복63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금),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100차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개최된 ‘공안탄압 분쇄! 이명박정권 심판! 815 전국노동자대회’는 공공부문 사유화와 언론장악 음모를 저지하고 산별교섭을 승리로 이끌자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집회를 마친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영등포역까지 행진하며 민주노총 투쟁의 정당성을 알렸고, 행진을 마친 대오는 곧바로 100차 촛불문화제 개최 장소로 이동했다.

8월15일 광복 63주년을 맞아 열린 100차 촛불문화제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근봉과 방패, 물대포를 앞세운 폭력진압속에서도 ‘반이명박 목소리’가 견재하라는 것을 과시했다.

애초 시청광장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됐던 집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긴급변경된 장소인 한국은행 앞에서 진행됐다.

‘학습계약제’ 보다 지식근로자 만드는 ‘평생학습시스템’ 절실

연간 100시간 의무교육... 점수별 인력 서열화 위한 잣대인가

“개통업무를 맡고 있는 박오 조합원은 오늘도 허리가 아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에 묶여 있는데 최근 영업 압박까지 가중됐다. 게다가 지난해 도입된 학습계약제는 또 다른 부담으로 발목을 잡는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기 일쑤인데, 온라인교육 진도는 언제 빼야 할 지 버겁다. 지난해는 업무시간에 컴퓨터를 켜 놓고 나가 정해진 100시간은 넘겼는데, 올해는 오전에 접속이 안될뿐더러 학습계약제 지표가 계량화되어 점수로 나온단다. 흑여 이로 인해 인사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반면 Y사 공장근로자 김모씨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직원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상이 됐다. 그가 받고 있는 교육은 원어민이 지도하는 영어회화. 교대근무에 쫓기다 보니, 처음에는 시간도 아깝고 낯간지러워 반감도 있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근무시간 안배에 대한 회사의 배려도 있고, 시간외수당이 주어지고, 테스트 부담도 적어 재미가 붙었다. 다음주에는 초등학교생 딸과 그 동안 배운 것들을 나눌 생각이야.”

요즘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의 인재양성 바람이 크기도 하고, 이로 인한 가치창출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단 연 뒤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30~40년을 내다보고 프로그램을 짜는 기업도 있다. 정리해고 대신 기업구조의 일대혁신을 이룩한 유한킴벌리나, 자율적인 평생교육을 내세운 포스코, 고령화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BMW는 좋은 예가 될 듯하다. 물론 이들 기업도 교육의 성과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진의 열린 마인드 덕에 부담보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흐름과 KT 직원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직원교육은 대세... 평생학습프로그램 필요

국내 대기업 직원교육비가 선진국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발표한 50대 그룹사 교육훈련 실태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중은 0.78%로 미국의 2006년 인적자원 개발투자 우수기업 42개사 평균인 0.72%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기업들이 사내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가 발전과 교육에 나선데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교육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와 연계되어 임금이나 승진, 정리해고를 위한 단발성 잣대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직원교육의 모델은 어떤 것일까. 기업마다 풍토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경영진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한킴벌리의 예는 간과하기 어렵다. 아시아인 웰스트리트저널 조사결과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6위에 랭크된 유한킴벌리. '95년부터 10년간 유한킴벌리의 부흥을 이끈 장본인이자, KT 전 사외이사이기도 한 문국현 사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유한킴벌리는 기업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인재란 누구인가. 일류대학에서 일류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만약 그 말이 옳다면, 22세 이전의 학문적 역량이나 기회가 이후 40년의 학습기회, 문화, 선배나 동료들 통한 학습보다도 우월하다는 말이 되는데 유한킴벌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한킴벌리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컴퓨터도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할 가능성이 많고, 사회적 역량이 강하다고 자부한다.”

이 말에는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을 단순한 육체노동자가 아닌 지식노동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한킴벌리의 지식경영 마인드가 내재돼 있다. 이를 증명하듯 유한킴벌리는 2005년 한 언론

사가 발표한 ‘존경받는 한국기업’ 순위에서 직원 및 사회가 바라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KT는 주주들이 뽑은 여러 우수기업 중 하나에 그쳤다. 유한킴벌리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과 교양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투자라 여긴다.

KT 성과위주 학습계약제 부담스럽다

반면 KT의 직원교육은 직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과위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KT는 올해 직원교육시간을 100시간으로 한정하고 276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 그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해 지난해부터 학습계약제와 맞춤형 학습시스템(CB-HRD: Competency Based HRD)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계약제는 2급 이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상사와 협의의 통해 온라인(CB-HRD)상에서 학습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특히 직무역량 수준을 L5(Master), L4(전문가), L3(실무자), L2(학습자), L1(초보자)으로 구분해 L4급 이상 확보율을 높이고, L2 이하 인력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L3(실무자) 이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습계약제는 2007년 시행 첫 해, 직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기회를 균등 배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무리한 추진과 사전준비 미흡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겼다. 가장 큰 것이 평가와 연계된 목표달성 부담이다. 첫째부터 목표시간 100시간을 평균 81%나 초과 달성하는 과열양상을 나타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폐이 지 남기기 식’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업창구, 전담, 도서지역 근무자처럼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연간 개인별 학습시간('06년 기준)

기관별	유한킴벌리	삼성	공무원	국내100대 기업 평균	KT
학습시간	300	135	100	106	92

올해는 학습형태 구분 없이 100시간만 이수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집합교육은 1.3배를 인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집합교육 이력을 참석하면 20시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온라인교육은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근무 집중시간(오전 10시~정오)에는 접속을 제한했다.

앞서 말했듯, KT 직원교육은 성과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은 대부분 KPI 지표 중 하나인 ‘인적자산 가치 증대’(가중치 5점)로 지정되어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점이던 것을 5점으로 낮춰 부담을 줄인 듯 하지만, 대신 올해부터는 개개인의 점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계약제를 계량화했다.

본사/사업부서 제외한 전 부서 학습계약제 점수화

올해 본사/사업부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습계약제를 비계량화 했지만 지역본부, 지사, NPC/NSC는 학습계약제를 모두 지표화하고 강화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잣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지역본부에는 자격증 제도인 KTCC(KT Certified Consultant)와 KTPE(KT PC Engineer), 컨설턴트아카데미, 교육강사지원 등을 신설했으며, 지사는 교육강사지원은 통합유지하고, 핵심사업인력육성을 신설했다. 그나마 KTCC, KTPE, 컨설턴트아카데미는 축소 유지했다. 때문에 직무에서도 ‘실적’을 올리고 교육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본사/사업부서를 제외하고는 전 부서를 들쭉는 구조가 됐다.

현장직·노후삼 고려한 평생학습모델 기대

KT는 현장직 학습모델 구축, 퇴직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평생학습모델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각 학습과정에 대한 정



리와 함께 현장직 학습모델의 부재를 느끼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듯 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학습계약제는 지표화됐고 KPI와 연계되고 있다.

게다가 퇴직프로그램인 ‘제2의 인생설계 워크숍’은 여러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이는 퇴직을 앞둔 예정자들과, 앞으로 퇴직을 하게 될 모든 직원들을 위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학습과정이다. 회사가 앞장서 구성원들의 퇴직 후 인생설계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60세 이후 노후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듯 해 아쉬움이 생긴다.

정리해고란 없다는 유한킴벌리나, 자율적 평생교

육을 내세운 포스코,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을 보호하려는 BMW의 사례와는 비교조차 부끄럽다.

기업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입사에서부터 정년까지를 함께 하겠다는 고용안정의 다짐이자,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가 꼭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성과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KT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KT 직원교육 기관별 지표		출처: KT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NPC/NSC	본사/사업부서
'08년	학습계약제(40점) 핵심사업인력육성(10점) KTCC(10점) KTPE(10점) 컨설턴트아카데미(10점) 교육강사지원(20점)	학습계약제(50점) 핵심사업인력육성(20점) KTCC(10점) KTPE(10점) 컨설턴트아카데미(10점) 교육강사지원(0-5가점)	학습계약제(100점) 강사지원(0-5점)	학습계약제(비계량)
'07년	전문기술인력양성도(100점)	학습계약제(상무대우 비계량) KTCC(25점) KTPE(30점) 컨설턴트아카데미(25점) CV강사지원(10점) 강사지원(0-5가점)	학습계약제(비계량)	학습계약제(비계량)
비고	• 지역본부에서 지사 Control Slip을 갖도록 지사와 세부 지표 연계성 확보	• 학습계약제 KPI 반영(50P) CV강사, 강사지원을 통한 교육강사 지표화	• 교육강사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표 추가	• '07년도와 동일하게 학습계약제 평가

사례별 소개

〈유한킴벌리〉

평생교육은 기술개발 위한 진짜 투자

1998년 경제위기 당시 제품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유한킴벌리는 6개월 넘게 일부 생산라인을 멈춰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공장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재고는 쌓여갔다. 구조조정 위기가 감돌았고, 노사간의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한킴벌리는 여유인력 비율이 전체 직원의 40%를 넘어서고 있었다.

문국현 전 사장은 고민 끝에 정리해고 대신 4조 근무제를 제안했다. 물론, 이 방식은 유한킴벌리가 공장근로를 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면이 크다. ‘4조 2교대’는 근로자를 4조로 나누어 16일을 주기로 4일은 일하고, 4일은 쉬거나 그 중 하루는 교육을 받고, 또 4일 근무하고, 4일 쉬는 식이다. 타기업 3조 근무와 비교하면 사람 수는 25% 많고, 교육훈련과 결합된 제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계를 365일 가동하게 되고 충분한 휴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직원들에 의해 생산성이 높은 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했다. 연평균 150시간 특근이 없어지면서 도입 첫 해에는 직원들의 연봉이 7% 줄었지만, 다음해부터는 특별성과급이 지급되고, 수당과 임금이 올라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었다.

유한킴벌리의 평생교육은 초기부터 교양교육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시사교양, 컴퓨터교육, 영어회화 등에서부터 의사소통, 운동경기,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개발, 음악감상, 전시회 방문, 영화감상 등 자기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시간도 300시간으로 점차 늘었다.

〈포스코〉

전폭지원으로 자율성 강조하는 평생학습

포스코가 추구하는 고유의 기업문화는 평생학습이 가능한 일터다. 포스코는 2005년 1월 직원들의 평생학습을 기업목표로 내걸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원활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서별 근무형태와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철소와 부서에 자율권을 부여했다.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가치공유학습은 연간 인당 3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고, 동아리활동에만 연간 20억원 지원하기도 했다. 또 평생학습 중 근무시간 외 가치공유학습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3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수당도 지급한다.

기존의 학습 목적이 업무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었다면 포스코의 평생학습은 삶과 일, 학습을 결합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직원 개인의 자아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또한 평생학습일을 지정해 전 직원에게 학습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부서 주도로 직원 요구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생학습일은 연차휴가와 근무일을 활용하는 노사합의를 반영해 부서 별로 학습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근무시간 중 학습시간 확보가 어려운 교대근무 직원은 휴일 대체, 설비 휴지 등을 활용해 여건에 맞게 학습시간을 운영한다. 학습내용은 교양문화, 기업가치 공유, 직무역량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교양문화 부문은 직원들이 원하는 카페테리아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습군을 편성한다.

〈BMW〉

근로자 고령화에 초점맞춘 교육훈련

독일은 2020년 경제활동 인구의 약 40%가 50~65세 사이의 고령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35년부터는 독일 근로자들의 정년이 67세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내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일기업에서는 구성원의 노후화에 대처하고 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써 평생학습 개념을 체계화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BMW는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매년 엄청난 유로를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BMW공장은 고령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과거 신규채용자 2,300명 중 600명 이상의 근로자가 40세 이상이며, 특히 이 가운데 100여명은 50세 이상이다. 이러한 관행은 BMW 근로모형이라는 이름 아래 고령인력 채용과 교육훈련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인력의 인구통계적 변화를 고려한 BMW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리더양성, 내부 의사소통,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평생학습 개념과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고령인력의 능력향상을 실현하고 생산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이 단지 수직적 구성변화뿐만 아니라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및 업무처리 절차와 경험의 소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독일기업 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식 및 경험경으로 불리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되고 있다.

9기 자주통일선봉대 활동

“여름의 절정,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서울, 강원, 대구지역 통일선전전 및 투쟁사업장 지원



원주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통 앞

6·15/10·4 남북공동선언 지지이행'을 기조로 한미평화협정을 기원하는 민주노총 9기 자주통일선봉대가 8월 5일(화) 용산 철도노조본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10박 1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아홉해를 맞은 민주노총 자주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는 1차(8/5-8), 2차(8/8-11), 3차(8/11-15) 총 37수로 나누어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 대구, 창원, 진해, 거창, 군산, 대전 등 전국을 순회한 뒤 8월 15일 서울충북문화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KT노동조합은 중앙본부 장인태 조직2국장, 대구지방본부 이영태 조직국장, 부산지방본부 이호우 조직국장 등 3인을 시작으로 총 14명의 조합간부가 통선대에 앞장섰다. 3박 4일간의 통선대 1차 활동을 함께하며 서울, 강원지역과 대구시 투쟁현장을 찾았다.



대구지역 충북문화제



대구 미군기지 캠프워크 투쟁



도루코 문막공장 앞 시위

“노동자의 힘으로 통일을 앞당기자” 통선대 출정식, 때마침 부시 방한일과 맞물려

8월 5일, 열정과 패기를 안고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9기 통선대 출발을 위해 모였다.

9기 통선대는 자주통일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를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한반도 전쟁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FTA 중단, 이명박 정부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조한구 통선대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침 부시 가 이 땅을 찾은 날 출정식을 갖게 돼, 통선대의 역할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 뒤, “현 정세는 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6자회담, 언론합의문 도출 등 국제정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발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냉전시대를 고수하려는 반통일 정책과 한미동맹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기 통선대원들은 출정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노동자가 앞장서 이를 전국민에 홍보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첫 일정으로 오후 5시 30분 종로 보신각 앞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이 주최한 ‘부시 OUT! 명박OUT! 공동행동’ 집회에 참석해, 통선대의 출발을 알리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의 인권찾기” 양천구청 환경미화원 복직투쟁 합류

다음날 6시에 기상한 통선대는 주변정리 후 7시 30분부터 신도림역사 주변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시간가량 ‘비정규직 철폐와 반미투쟁’ 선전전을 벌였다. 이어 양천구청 앞에서 열리는 민주연합노조 집회에 참석, 한성용역 해고노동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양천구청 앞에서는 양천구 한성용역조합원 80여명이 해고자 복직투쟁 중이다. 양천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담당하는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징계가 예고된 상태다. 또한 한성용역뿐 아니라 양천구에는 6개 환경미화 업체가 용역업체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용역업체 조합원들은 업체 사장의 횡포와 지역 미화원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하루 15시간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성용역 노동조합원들은 “양천구는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해 업체만 돈을 버는 청소민간위탁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명절도 없고, 끼니도

걸려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향한 비인간적 노동착취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선대는 이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런 악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선전할 것을 약속했다.

“말썽많은 미군기지, 또다시 기름유출 파문” 원주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통 찾아투쟁

강원도 원주로 이동한 통선대는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원주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통 앞에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즉각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원주 미군기지 캠프통에서는 2001년에 이어 또다시 기름이 유출돼 인근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농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미군은 보일려용 등유 400리터가 유출됐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한국측이 사고발생현장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한구 통선대장은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군기지가 떠난 자리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아미아미한 복구비용이 국민혈세로 충당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캠프통 역시 2010년 반환될 예정이지만 폐쇄한 오염 터가 아닌, 온전하고 깨끗한 땅으로 우리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희 원주시민연대 대표는 “소리소문 없이 언제 또다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군 측은 기름유출의 양과 피해 정도를 밝히고 원주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하루빨리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선대는 미군에 항의하는 내용을 적은 노란 두건을 미군기지 철조망에 매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한 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대 인근 절골마을 현장을 찾았다. 이날 함께한 원주 녹색연합 이숙현 사무국장은 역한 기름냄새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수로를 가리키며 “오염사고가 터져 농민의 피해가 엄청난 상황에서도 오염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정부와 미군이 자랑하는 SOFA 환경조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군은 유출량을 400리터로 추정했지만, 지하배관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근 농수로로 유입된 상황을 볼 때 오염량과 범위는 가늠이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한낮 폭염속 도루코 문막공장의 암담한 현실” 해고 교섭 거부 속 250일째 천막농성

셋째날, 통선대는 아침 일찍 문막으로 이동해 7시부터 만도 문막공장에서 출근선전전을 펼쳤다. 만도는 노동조합의 결집력을 반영하듯 조합원들의 호응도 적극적이었다. 덕분에 통선대는 아침부터 시작된 폭염 속에서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찾은 도루코 문막공장의 현실은 통선대원들의 걸음을 무겁게 했다. 도루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업농성, 천막농성만 250일째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사측의 일방적인 횡포 속에서 연차, 잔업, 특근, 야간, 명절수당도 없이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4월에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적극적인 행동을 선포하자, 회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도루코 문막공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30일 이내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회사는 해고자들을 복직 시키지는커녕 단체교섭마저 거부하고 있다.

통선대는 노동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도루코를 향해 2시간 가량 구단대회를 벌인 뒤, 도루코 조합원들과 연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농민들 선동하는 영월농협 횡포 막아야” 소리역행하는 영월농협에 경고

통선대는 이어 영월농협 투쟁현장을 찾았다. 전국농협노조 영월분회는 이미 지난 5월 218일 동안 벌여온 총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했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에 대한 횡포는 여전히 계속됐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동안 진행된 교섭을 통해 전국농협노조와 영월농협사측이 노조인정, 임금 및 노동조건, 노조의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이 포함된 124개 조항의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사측이 몇몇 미합의 조항을 빌미로 아직까지 사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농협사측은 농민들에게 노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선동, 농민들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내미는 상황까지 치닫해 하고 있다.

통선대는 영월분회 노조원들과 토론을 통해 “농민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가난한 투쟁의 끝을 맞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이후 통선대는 대구로 이동, 대구지역 통선대와 함께 충북문화제를 개최한 후 다음날 미군기지 캠프워크 투쟁을 이어갔다.

KT노동조합 통일선봉대 3차대원 수기

“나는 자랑스러운 통선대원”

광주부터 강화까지... 폭염과 폭우속에서 꽃피운 투쟁



윤준상
· 제9기 자주통일선봉대 3기
6·15중대 1소대
· KT노동조합
강북지방본부 조직국장

올 팔월의 태양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강렬했던 것 같다. 열대야 현상으로 밤잠을 거의 못 이룰 정도로 온 대지를 달구어 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무더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는 달려갈 곳이 있었다. 민주노총 제9기 자주통일선봉대 제3차 대원으로서 본대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4박 5일의 일정이라 준비할 것이 제법 많았다. 특히 여름철이라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배낭 가득 짊어지고 용산역으로 향했다. 바빠 서두른다고 한 것이 기차를 놓칠 것 같았다. 간신히 숨이 턱까지 차게 달음박질을 하여 출발 1분전에야 기차에 몸을 실었다. 먼저 와 기다리던 서부 조직국장이 나와 함께 하느라 달음박질을 해 미안했다.

광주에서 통일선봉대원인 KT노동조합 중앙본부 국장님들, 그리고 수도권 공장님들과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임소를 했다. 본대와 합류할 장소는 광주 시청앞 금남로, 통일문화제 및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되었다. 서울 시청 앞에서 하던 촛불시위는 좀 색다른 분위기였다. 젊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뜨거운 램프 신세대 춤으로 흥을 북돋고, 우리 통일선봉대가 카드섹션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촛불시위를 끝내고 금호타이어로 이동했다. 중대 및 소대가 편성되었고,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자주통일 선봉대원이 된 것이다. 함께 간 우리동지들을 각 소대로 뿔뿔히 흩어놓아 별안간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 소대는 3명의 국장님들이 함께 편성이 되어 같은 소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곧바로 피복을 지급받고 노래 및 울동을 배웠다. 오랜만에 받아 보는 야간교육이었다. 새로 나온 노동가 및 울동이 머리에 들어 오지 않아 힘들었다. 자꾸만 울동이 틀리고 노래 가사가 익혀지지 않았다. 이제 높은 노동자 소리를 들어야 하나보다. 높은 시간 총화를 끝으로 하루가 끝났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반을 넘기고 있었다. 교육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단잠을 청했다. 그러나 아침 5시 10분에 기상하라는 중대장의 지시에 긴 단잠은 어려울 것 같았다. 벌써 코고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렸다.

덧된 대로 새벽5시 10분 기상이었다. 6시 출근선전전을 해야 하니까 일찍 서두르는 것이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 교대근무시간에 출근선전전을 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몇 천명이 근무를 한다고 한다. 서둘러 선봉대 깃발을 앞세우고 정문 쪽으로 이동했다. 새벽비가 추적추적 내리 출근선전전 하는데 불편을 느꼈다. 새로 나온 통일 트윗스트 노래가 울동대의 춤에 맞춰 흥겹게 추어졌다. 우리도 함께 트윗스트 춤을 추며 출근선전전을 했다. 모든 조합원이 신기하듯 쳐다보며 출퇴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망월동 5·18묘지 참배를 위해 이동했다. 민주화의 성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많은 상념이 찾아왔다. 먼저 제3묘역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았다. 많은 열사님들의 묘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몽골함과 숙연함을 느꼈다. 열사들의 묘지를 둘러 동지들의 삶과 죽음을 일일이 챙겨 읽어보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누가 작곡하여 어떻게 불리게 됐는가를 이곳에서 알게 되었다.

기가지동차에서 중식을 마치고 로케트 투쟁 사업장으로 이동해 1년 가까이 투쟁을 하고 있는 로케트 동지들과 전남지역 통일선봉대와 함께 가열찬 투쟁을 했다. 비가 내린 아스팔트 위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팬티가 젖기 시작했다. 로케트 동지들 중 해고자 3명이 삭발식을 했다. 여성동지가 삭발을 할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지난 시절 우리

도 많은 여성동지들이 삭발을 한적이 있었다. 울음바다를 이루며 삭발을 한 일아...

너무나 담담히 받아들이며 삭발을 하는 여성동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찡해 눈물이 핑 돌았다. 민주노조를 세우겠다고 유인물을 돌린 이 유로 해고가 되어 가정주부로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 자본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 열악한 환경속에서 긴투쟁에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찡찡했다. 힘내야 된다. 쓰러지면 안된다. 이 길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 꼭 승리하길...

대추리에 도착하니 말로만 떠돌던 미군기지가 정말 어마어마했다. 내 고향은 평택이라 어려서부터 미군들을 자주 보며 자랐기에 별로 이상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었다. 문제가 심각했다.

다음은 소하리 기가지동차로 이동했다. 저녁을 먹고 교육시간이 이어졌다. 조금이라도 자유 시간이 없었다. 짝 짜인 시간을 모두 소화해야 했다. 늦은 시간까지 노래배우기, 울동배우기, 총화시간이 끝나니 벌써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훌쩍 넘었다. 빨리 스티로폼을 깔고 취침해야 했다. 2소대장의 코고는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다. 깔깔대고 웃으며 잠을 청했다.

기상이다. 새벽 6시 빠른 동작으로 이동해 출근선전전을 시작했다. 울동대의 통일의 트윗스트가 신나게 펼쳐지고 엄청나게 많은 출근버스와 조합원들이 물밀듯이 들어닥친다. 또 비가 내린다.

다음 목적지는 기룡전자. 단식투쟁중인 지도부를 위로하고 함께 투쟁을 했다. 많은 투쟁의 현장에서 기룡전자의 소식을 접했지만 직접 방문하니 상황이 답답하다. 목숨을 건 지부장의 단식투쟁, 물마저 끊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여성 동지까지...

성금을 전달한 뒤 지도부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효순, 미선이의 위령탑에 지역 통선대와 합류 참배를 하고 투쟁의 대오가 있는 의정부 법원 앞으로 이동. 힘차게 싸우고 있는 택시 노동자와 투쟁을 벌였다.

저녁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인천지역 노동자들과 연대해 촛불집회를 치렀다. 인천지역 민주노총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저녁시간에 다시 교육을 받으며 울동과 노래를 배웠다. 잘 안 되니 큰일이다. 자꾸 틀린다. 나 혼자 멋쩍어 웃었다. 녹녹한 냄새를 흠뻑 마시며 또 하루를 접었다. 3일째 밤이다.

다음날 아침 강화도로 이동해 참혹했던 1·4후퇴 때의 현장을 살폈다. 당시 12살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어머니가 죽음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끌려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분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 듣는 8월 한낮의 더위는 정말 대단했다.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러 내린다. 모자라도 안 썼으면 몇 개 안 남은 머리카락이 벌써 다 벗겨졌을 것이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한치도 굴하지 않고 제9기 자주통일선봉대 대원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전국을 돌며 어려운 투쟁을 하는 동지들을 봤다. 보다 더 열심히 투쟁하는 노동 행동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 교육을 마치며 노동자가 앞장서서 분단된 조국을 하나되게 하는데 앞장서겠다.



망월동 5·18 묘지 참배

조합원 하계휴가사진, 여행수기 콘테스트

노동조합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의 휴가사진 및 여행수기를 받았습니다. 많은 조합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편집팀도 가족·지인들과 함께 한 건강한 여름휴가를 엿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그중 4분의 여행수기와 사진을 공개합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조님의 향기를 찾아 떠난 여행

충남지방본부 충남NSC지부 홍성TMC 이근전



8월 15일 오전 9시, 우리가족은 예산을 출발하여 경상북도 영천으로 향했다. 큰 딸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은 왜 이리도 먼 것인가. 큰딸아이가 빠진 미완의 우리가족을 태운 승용차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 지 거친 숨을 토해내며 심장이 터질 듯 힘 없이 달리건만 영천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결눈질로 슬쩍 훑쳐 본 아내의 눈은 어느새 축축해져 있었고, 작은 딸아이는 언니를 만나는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해 즐거움이 턱 밑으로 뚝뚝 흘러 떨어진다.

계획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딸아이를 도와준 대학생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 부모님께도 인사와 사례를 드리고 나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20여일 동안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공부한 큰딸아이는 한층 성숙해져 있었다. 나는 딸아이를 보면 해주고 준비했던 말도, 행동도 속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딸아이에게도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주변머리 없는 아버지임을 홀로 자책했다. 우리가족은 영천 인근 지역에서 가족여행을 하기로 했다. 먼저 군위군의 인각사로 차를 몰았다. 보각국사 일연성사께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시고 발견하신 성지 인각사. 우리가족은 비가 내리는 인각사에서 일연성사님의 자취를 느끼려 애썼다. 보각국사 부도와 비를 찬찬히 바라보며 7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일연성사님과 마주하는 시간은 우리가족에게 큰 기쁨이었다. 우리가족은 저마다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일연성님께서 이곳에 계셨었구나.", "700년 전에 일연성님께서 저 산을 바라보셨겠지?", "대기록 삼국유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연성님", "일연성님과 삼국유사를 생각하며 그토록 그리던 인각사를 오늘에서야 와보는구나..." 등.

아본 나는 마치 어제 시집 온 새벽이 녹의 홍상을 입고 시집에서의 첫 아침을 맞는 듯한 기분이었다. 눈을 들어 의성읍내를 조망했다. 지호지간에 KT의성지점이 보였다. 그 때의 반가움이야 여기서 더 말하여 무엇하리.

오전 9시, 우리가족은 의성군 금성면 탐리로 향했다. 국보 제77호 '의성탐리오층석탑'을 찾아서. 통일신라인들이 7세기 중엽 목탑과 전탑의 혼합양식으로 만든 신라 석탑의 초기형식이며, 우리나라 석탑양식의 한 시원(始原)이 되는 바로 그 탑을 찾아서. 탐 앞에 서서 우리가족은 신라인들의 웅대한 기상과 신라석공의 미려한 솜씨를 감상했다. 한참 동안 탐리오층석탑을 바라보며 우리조상님들의 강인정신에 감탄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남겨주신 조상님들께 감사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찬란한 대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주신 보각국사 일연성사님, 돌을 다듬어 우리에게 유구한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신 신라의 이름 모를 석공님. 오늘 조상님들의 자취를 찾아 떠난 우리가족에게 선조님들께서 주신 선물은 위대했다. 이제 우리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나는 일연성사님과 신라의 이름 모를 석공님의 대화는 우리가족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가족은 당대의 자취를 후대에 아낌없이 남겨주신 조상님들을 소리 높여 불렀다. "보각국사 일연성사님이시여!", "신라의 이름 모를 석공님이시여~!"

우리가족은 인각사를 떠나 내일의 여행을 계획하며 의성읍내 한 모퉁에서 밤이 깊어가는 졸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8월 16일. 아침 일찍 눈을 뜬 나는 창문을 열었다.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이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빨랫줄을 매놓은 듯 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의성 땅을 밟

가깝고도 아늑한 곳으로 떠난 나만의 휴가

대구지방본부 안동NSC지부 안동OMC 권순탁



아내와 자식들은 처가집 식구들과 따로 미리 휴가를 보내 놓았습니다. 저는 안동 NSC소속 등산회 동료들과 안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청량산에 갔습니다. 청량산에 오르는 길가엔 기와장과 통나무로 물길을 만들어 놓았고, 모든 분위기가 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 한 병씩을 마시고 오후에는 래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같이 온 사람들과 보트별로 조를 나누어 물싸움을 했습니다. 이어 잠시 보트에서 내려 어묵을 먹고는 강을 먼저 건너고 수영시합을 했습니다.

다. 하지만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하! 이런 비경이 숨어 있었구나, 내가 이 고장에 살면서 이런 곳을 몰랐구나' 감탄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금방 집에 오니 뒤끝이 좋았습니다. 돈 들지 않고 시간 걸리지 않고 좋은 비경을 본 아주 환상적인 하루였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나만의 휴가가 따로 있을까요?

10명에서 산을 오르니 얼굴에 흐르는 땀 줄기가 빛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상쾌한 느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늘다리에 도착. 해발 800미터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아찔아찔하면서도 재미있는 게 이게 보통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가 약간씩 움직이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난간줄을 양손으로 꼭 잡고 기어가다시피 해 장인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70미터입니다. 장인봉에서 밑을 바라보는 전망은 아! 마치 그림 속 동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리산수련관을 다녀와서

강남지방본부 하남성남지부 조합원 부인 임경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아서 여름 휴가를 안가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다. 물론 마음을 접으니 딱히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 등 여러 정황이 휴가이야기로 가득 차, 마음을 잡 설레게도 또 우울하게도 만들었다. 핑계짓지만 애들도 수영장 한번 못 가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 휴가를 가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 너무나도 근사한 기회가 생겼다. KT지리산수련관을 갈 수 있는!

가족대항 투호놀이도 했다. 평소에는 서로 지쳐서 꼭 해야 할 대화도 못하고 사는 생활이었는데 이런저런 놀이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며 웃을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일인지... 귀여운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했다. 이렇게 와보면 그다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웃고 즐길 기회가 많은데 말이다. 수련관 산책로에는 여러 가지 놀이거리들이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평소 같으면 풀거나 아침 겸 점심을 먹었을텐데, 기분하게 일어나서 정말 왕처럼 푸짐한 아침을 먹었다. 전담주부이거나 맞벌이주부이거나 공통으로 느끼는 식사부담을 여기서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덕분에 얼마나 더 가족과 놀 수 있는 시간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지 감탄하게 됐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족대항 탁구를 치

고 점심을 먹고 수영장에 갔다. 역시 애들이라 물과 친했다. '슬라이드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봤다. 그래도 아주 멋진 실내수영장에서 신나게 수영을 하고 수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지칠 때까지 놀다가 저녁을 먹었다. 날이 더운데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수련관 내에 서만 즐기는 시간도 만족스러웠다. 휴양지에서의 즐거움은 다 맞본 것 같다. KT수련관 덕분에 시간이 지나는 게 아쉬운,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관광지에서 가면 보통 목이 많이 지치는데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보고 가자' 저것도 보고가자' 하는 조금씩이 생각이 마련인데, 이번에는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 마주보며 웃고 즐기던 한편안하고 기쁜 휴가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Thank you KT!!!

가족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기본종계 출발했다. 비록 차를 타고 4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달려가는 주변환경도 너무 좋고 상쾌했다. 양산에 사는 언니네 식구들도 합류해서 같이 갔다. 오후 5시쯤 도착해 간단하게 짐을 풀고 한 바퀴 산책을 했다.

"백로야! 내 아들 돌려다오"

전남지방본부 광주NSC지부 경영혁신팀 김유진



○휴가기간: 2008.8.3 ~ 8.5
○사진내용: 이번 여름휴가는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뜻하지 않게 물가에 앉은 백로 한마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잡겠다고 아들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습니. 아내와 힘을 합쳐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무료 생활 법률 상담 사례 - 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해 8월초 1:1 무료 생활법률상담 게시판을 오픈했습니다. 초기부터 많은 조합원들께서 찾아 주셔서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조합원들께 보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이번 호부터 법무법인 디지털 이명우 변호사로부터 몇몇 주요 상담사례를 받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더욱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옆집으로 배달된 내 소포, 그냥 가져와도 될까요?"

사례 ① 얼마 전 제 이름이 적힌 소포가 주소가 잘 못 쓰여 옆집 우편함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지고 왔는데, 이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것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우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나 실수로 소포, 선물 등의 물품이 타인의 주소로 배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본인이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 등의 없이 슬쩍 수령한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타인의 주소로 배달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점유권이 그에게 있으므로 '점유침탈'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 문입니다. 주소 거주자에게 본인의 소포임을 확인 받은 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관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02. 09. 선고, 95다39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트럭운전자가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02. 03. 선고, 94다33866 판결)

사례 ② 상가가 운집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어서 이침마다 차 앞유리에 붙어 있는 전단지 를 떼어 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의 차에 전단지를 끼워두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아간에 운전하다가 주차중인 트럭에 충돌했습니다. 양쪽 차량 모두 상당히 파손되었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곳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트럭운전자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31101 판결) 다만 질문하신 분도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우입니다.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광고물 무단침투로 처벌될 수 있고, 차량과 아파트 담장 등에 부착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전단지의 내용이 음란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이동성 물건에 대한 규정은 경범죄 관련 조항에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이 같은 사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도시계획구역 등에 전단지를 배포할 때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지의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